

하얀 눈꽃 동화 같은 세상, '덕유산과 무주구천동'

여행작가 김초록

이름 그대로 후덕함이 깃든 덕유산은 지금 깊은 적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흰눈을 소복이 인 채 겨울 찬바람을 맞고 있다. 고적(孤寂)이 온 산을 감싸고 있는 덕유산으로 새해맞이 여행을 떠나보자. 덕유산이 보여주는 현결찬 기상은 일에 찌든 사람들에게 '생기(生氣)'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덕유산(德裕山:해발 1614미터)은 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면서 열두 명산 중의 하나로 꼽힌다. 전북과 경남의 4개군, 8개면을 아우르고 있는 덕유산은 북덕유산과 남덕유산으로 갈라져 있다. 덕유산 깊은 골에서 흘러내려온 맑디맑은 물은 구천동계곡과 용추계곡을 타고 동쪽으로는 황강 서쪽으로는 금강 남쪽으로는 위천 북쪽으로는 남대천과 만나는데, 이런 산형(山形) 때문인지 오랜 옛날부터 덕유산 주변으로 크고 작은 마을이 들어섰다. 농사 지을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데다 풍치 또한 뛰어나서 너도나도 몰려들었다. 덕유산이 예사로운 산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왜적이 침입해 왔을 때 수호신의 역할을 단단히 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전주로 돌진하던 왜군을 부항령과 육십령, 어각재에서 저지함으로써 그 위용을 펼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흔히들 덕유산을 이남(以南) 산의 중심이라 말한다. 북으로는 속리산, 남으로는 지리산, 동쪽으로 가야산, 서쪽으로 계룡산이 아늑하게 품어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갖가지 비경을 숨긴 안팎은 그지없이 부드럽고 은화하다.

겨울 덕유산은 운무(雲霧)와 눈꽃의 절묘한 조화에서 그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또한 주목(朱木)과 어우러진 상고대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상으로 이끈다. 상고대란 나무나 풀에 눈 같이 내린 서리를 일컫는 말로 수빙(樹氷)이라고도 한다.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차로 공기 중의 수분이 갑자기 얼어붙어 생기는 현상이다.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눈꽃과 상고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순수와 기쁨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된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은 태초의 모습에서 경이감과 불가사의한 신비감을 감지한다. 그래, 저 모습이야말로 천년 자연이 만들어낸 집중력의 꽃이리라.

운무에 휩싸인 능선과 이른 아침의 설경(雪景)은 자연이 만들어낸 지고한 걸작품이다. 구름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태양은 자연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며, 별갈게 달아오른 해는 주목을 쓰다듬으며 하얀 눈발에 엉겨든다. 그 순한 빛을 보는 순간 산행의 험겨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힘이 붙은 솟구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야호' 소리가 산봉우리를 찌렁찌렁 울린다.

덕유산(북덕유산)은 주봉인 향적봉을 중심으로 해발 1천300미터 안팎의 능선이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남덕유산(1507미터), 무룡산(1491미터), 거칠봉(1177미터), 지봉(1247미터), 만선봉(1232미터) 따위의 준령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는데, 무룡산과 샷갯봉을 거쳐 남덕유에 이르는 주능선의 길이만도 16km를 넘는다.

정상인 향적봉으로 오르는 길은 덕유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인 삼공리(전북 무주군 설천면) 주차장에서 시작한다. 이곳에서 구천동 계곡을 따라 백련사까



지는 길이 잘 닦여 있다. 백련사를 거쳐 향적봉에 오른 뒤 중봉-오수자굴로 다시 돌아오는데 약 8시간 정도 걸린다. 산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주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관광 곤돌라를 타고 향적봉 아래, 만선봉까지 손쉽게 오를 수 있다. 곤돌라 하차 지점에서 향적봉까지는 쉬엄쉬엄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하다. 향적봉에서 중봉까지는 20분이 걸린다. 곤돌라 이용 문의 무주리조트 고객센터(063-320-7777). 이용료는 왕복 9,000원, 편도 6,000원을 받는다.

덕유산의 면면은 '구천동 33경'으로 빛을 발한다. 나제통문에서 시작하는 구천동의 경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구천동 계곡을 따라 갖가지 소(沼)와 담(潭), 기암괴석들이 정상인 향적봉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구천동 계곡에 들어서면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지만 이어 나타나는 절경은 추위를 저만큼 밀어낸다. 심산유곡의 그윽한 정취를 맡으며 서서히 오르노라면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다. 은구암, 청금대, 와룡담, 학소대, 일사대, 함소, 가의암, 추월담, 단조탄, 파회, 수심대, 세심대, 수정대, 월하탄, 인월담,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다연대, 구월담, 금포탄, 호탄암, 청류계, 안심대, 신양담, 명경담, 구천폭포, 백련담, 연화폭포, 이속대, 백련사, 덕유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저마다 품고 있는 사연도 가지가지여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속세를 떠난다는 뜻의 이속대를 지나면 백련사 일주문이 반긴다. 절에서 울려오는 목탁소리가 속세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안온하게 감싸준다. 백련사는 신라 신문왕 때 백련선사가 은거하던 곳에 백련(白蓮)이 피어나자 짓게 된 절이라고 한다. 백련교를 건너 일주문을 지나면 백팔

번뇌를 상징하는 108개의 석조계단이 나타난다. 경내에는 매월당 부도와 고려 때 제작된 삼존석불이 있다.

백련사를 지나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香積峯)으로 오르는 길은 가파르다. 눈 쌓인 오르막길을 허위허위 오르다 보면 눈웃을 입고 있는 주목이며 구상나무를 만날 수 있다. 백련사에서 향적봉까지의 2.5km 구간(1시간 30분 소요)은 산세가 비교적 험난한 편이지만 덕유산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다.

구천동 33경의 하나인 향적봉에 오르면 고래등 같은 능선이 아득하다.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천왕봉과 반야봉, 가야산, 적상산, 속리산, 마이산까지 눈에 잡힌다. 향적봉은 그 모양이 꼭 향(香)을 쌓아놓은 것처럼 두루뭉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커다란 돌탑 2개가 서 있는 정상에 서면 세찬 바람이 몸을 휘감는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하산을 재촉한다. 향적봉에서 백련사-구천동계곡-삼공리주차장까지는 2시간 30분쯤 걸린다. 덕유산의 품을 좀더 느껴보고 싶다면 무릉산-삿갓봉-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종주 코스를 타면 된다. 종주 코스(총 산행 12시간 소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야영을 하거나 향적봉 아래 '산악인의 집(063-322-1614)'에서 하루를 묵는 것이 좋다. 남덕유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그 중에서도 거창군 송계사를 거쳐 싸리동재-덕유평전-중봉-향적봉에 이르는 길은 비단길이라 부를 만큼 경치가 뛰어나다.

구천동은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에서 발원하여 무주읍을 관통해 금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다. 물빛이 맑기도 하지만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잘 마르지 않는다.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기(精氣)가 충만하다는 뜻일 게다. 구천동 골짜기를 흐르는 냇물이 바로

설천(雪川)이다. 눈처럼 하얗다는 뜻으로 덕유산에 수행자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 그들이 씻은 싹뜨물이 냇물을 하얗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흔히들 무주를 올고 왔다 올고 가는 고장이라 말한다. 이는 들어올 때는 하늘과 산이 전부인 첩첩 산골이라서 올고, 떠날 때는 구천동의 아름다운 비경을 더는 볼 수 없어 아쉬워서 온다는 얘기다. 오늘날 무주는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군(郡)이면서 한편으로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천혜의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 한적한 고장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순전히 '구천동 33경' 때문일 것이다.

한편, 덕유산을 중심으로 삼공리-안의-육십령-장계-적상산-무주까지의 1백50여 km의 길은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로 그만이다. 무주에서 덕유산 방향으로 18km쯤 달리면 설천면과 무풍면을 가르는 나계통문을 만나게 된다. 암벽을 뚫어 백제와 신라의 교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육십령에서 안의까지 이어지는 60리의 남계천 주변에는 농월정을 위시해 동호정, 건연정, 군자정 같은 정자들이 흩어져 있어 이 고장의 의미를 한층 북돋워준다.

▶여행메모=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무주IC로 빠지면 덕유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경부 고속도로 영동인터체인지로 진입한 다음 19번 국도를 타고 옥천인터체인지로 나와 4번 국도를 거쳐 신흥에서 501번 지방도로-무주-구천동으로 이정표를 잡는다. 대중교통은 영동이나 무주까지 버스나 경부선 열차를 이용한다. 영동이나 무주에서 구천동행 버스가 수시로 있다.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063-322-3175). 